

# 20년간 불교 미래 주역 훈련병 후원

## 호국 연무사 불교어머니회, 30년 지역 봉사 및 군포교

드러내놓지 않고 보살행을 30년 넘게 실천해온 이들이 있어 화제다. 호국 연무사를 후원하는 불교어머니회(회장 김옥분)는 1979년 4월 창립 이후 꾸준히 군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삼보법회에서 불교 교리를 함께 공부하던 보살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불보살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발심한 것이 첫 모임 결성의 계기다.

이들은 '가정에 충실한 어머니' '지상정토 이룩하는 어머니' '사회에 봉사하는 어머니' '인류의 자비한 어머니'가 되자는 한 목표로 고아원, 우애원, 소꿉새마을, 보육원, 경찰병원 환자위문 등 복지시설과 전국 각지의 군법당 및 교도소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회비만으로 매달 군법당 지원을 이어가기는 힘든 현실. 120여 회원들은 매 주 전국 사찰 및 행사장을 돌며 스님과 불자들에게 포교지원금을 모연하기도 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이 불교어머니회를 20년 넘게 지탱해 준 힘이다.

요즘 불교어머니회에게는 커다란 고민이 생겼다. 지난 5월 호국 연무사 법당이

### 1979년 논산훈련소와 첫 인연 계기 매달 수계증, 간식 등 보시행 펼쳐 전국적 규모 조직 확산이 큰 목표

완공된 뒤 불자 훈련병들이 크게 늘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났다. 완공 전 2천~3천명에 달하던 수계 훈련병들이 완공 후 지난 7월부터 5천명을 넘어선 것이다. 단순히 법회만 참가하는 장병들까지 합하면 7천명에 육박한다. 수계가 없는 일요일 법회에도 평균 5천명 이상의 훈련병들이 법당을 찾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교어머니회의 재정 부담도 두 배로 늘어났다. 김옥분 회장은 "지난해만 해도 논산훈련소 지원 비용이 3천만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5천만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



8월 24일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이 불교어머니회 후원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마 회원을 수가 늘어나고 불교어머니회를 후원해주겠다는 사찰과 불자들이 많이 생겨나 큰 위안을 얻고 있다"고 어려운 심정을 토로했다.

제천 무암사 황도 스님, 함안 광명사 지원 스님, 남원 영선사 월공 스님은 불교어머니회를 적극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이들이다. 특히 월공 스님은 지난 8월 24일 불교어머니회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 영선사는 불교어머니회 후원을 조직하고 매월 지정 절약기도를 통해 정기적으로 논산훈련소 수계법회를 지원중이다.

불교어머니회는 특정 사찰이나 스님, 단체에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논산훈련소 훈련병들을 위한 포교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어머니회를 이끌던 선대 회장들도 여러 고비가 있었지만 잘 극복했다.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주 늘어가는 훈련병들을 보며 회원들 모두 힘을 내고 있다"며 "앞으로 불교어머니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전국의 많은 군법당을 더 많이 후원하고 싶다"고 바램을 내비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불자들의 신행생활 정립 구현

## 광주불교교육원 '기도와 생활불교' 개최

재가불자들이 신행생활 정립을 위한 강연 및 한국불교 전망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이수규)은 지난 8월 28~31일까지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한 '기도와 생활불교'라는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재가불자들이 갖는 신행생활에 대한 의문점과 신행방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은 28일 관해 스님(법계사)의 '기도의 위신력'을 시작으로, 30일 해광 스님(정토사)의 '현대불교의 전망과 방향', 마지막으로 31일은 이종표 교수(전남대)의 '재가불자와 생활불교' 강연이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해광 스님은 현대불교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현재 한국불교의 문

제점과 개선방안'을 말했다.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문제점에 대해 크게 ▷종파의 난립의 문제 ▷법사제도의 문제 ▷사찰관리 문제 ▷승려 자질의 문제 등을 꼽았다. 스님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승가교육을 꼽았다.

스님은 이어 오늘날 사회적 현상에 대해 "사회는 모든 현상은 변화하고, 종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라며 "세界的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것을 향해 몰진해 간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불교는 시대적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오히려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한없는 여인으로 우리 곁에 다시 오소서"

### 8월 26일故 공옥진 여사 49재 봉행



공옥진 여사 49재에 애제자 한현선 씨가 살풀이 공연을 하고 있다.

"엄마 이제는 살풀이 춤사위에 올려놓은 팔, 다리 그만 내려 놓으소서. 소풍 나온 이승길이 참으로 한의 세월이었다면 그 또한 버리고 가소서. 남겨놓은 자식 걱정 행여라도 하지 말고 훨훨 바빠 가셨다가 후생에는 한없는 여인으로 다시 오소서."

1인 창무극의 대가인 공옥진 여사의 49재가 8월 26일 광주 무등산 원호사(주지 현지)에서 봉행됐다. 49재에는 공옥진 여사의 딸 김은희씨를 비롯한 유가족들과 신광사 경주 스님, 흥룡사 상운 스님, 금선사 일명 스님 등 광주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공옥진 여사의 딸 김은희 씨는 49재에서 '못 다 쓴 편지'라는 제목의 자필 편지를 어머니의 영전에 바쳤다. 김씨는 남편 독하는 내내 굶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이어 현지 스님의 집전으로 시작된 천도의식과 공 여사의 애제자인 한현선 씨

의 살풀이춤, 불자기수 주권기 씨가 평소 공 여사가 즐겨 불렀던 '기다리는 마음'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며 공 여사를 애도했다.

한현선 씨는 "선생님께서 생전에 제 자들에게 '소리의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소리를 하지 않고는 국악을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면서 "진정한 소리란 오장육포에서 우리나라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춤과 소리에 대한 열정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모공연이 끝난 후 유가족과 추모객들은 경내 소각장에서 유품을 태우며 공 여사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한편 공옥진 여사가 생전 기거했던 영광 육당골에 그를 기리는 '공옥진 기념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전주사찰음식 체험전 성황리 성료

### 적문 스님 사찰 강좌 시식회 등 인기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법진, 이하 사업단)은 8월 29~30일 이틀간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관에서 '2012 전주 시민과 함께 하는 사찰음식 체험전'을 개최했다.

'2012 전북방문의 해'와 '전주 음식창의도시' 선정을 맞아 '맛의 고장 전주'에서 음식관련 전문가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체험전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사찰음식 전문가인 적문 스님(한국전통사찰음식 연구소장)의 '사찰음식 조리교실'은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 신청을 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적문 스님의 사찰음식은 한옥마을을 방문한 일반인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송광정심원에서 아름다운 지구 환경을 보전하고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한 '식문화개선 캠페인'을 개최했다. 450



불교문화사업단은 송광정심원에서 지역주민 450여 명을 초청해 '올바른 식문화 캠페인 나눌과 비움'을 개최했다.

여 지역주민을 초청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빈 그릇 운동을 전개하고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렸다. 사업단은 지난 2010년부터 전주 발효과학연구소에 사찰음식이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도 전주비빔밥 축제에 사찰음식 특별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생명평화와 종교화합 선율에 실어

### 무등산 풍경소리 10주년 기념 음악회

광주시민들의 대표적 문화공연인 무등산 풍경소리(공동대표 연광)가 10주년을 맞아 8월 25일 중심사 문화광장에서 기념공연 '바람소리'를 개최했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7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열려 이날 103회째 공연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주(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본부장) 씨가 제 일침 스님과(前 중심사 주지) 무등산에서 환경운동을 함께하며 풍경소리를 시작하게 된 인연담을 들려줬다. 이어 임의진 목사의 기타공연, 김두수, 권우영 등의 노래공연이 진행됐다.

무등산 풍경소리는 지난 2002년 일침 스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종교인의 모임에서 출발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의 성직자와 환경단체,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됐다.

음악회는 다른 공연과 달리 노래 속에 생명과 환경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고, 종교 간의 화합을 노래하는 의



김인주 본부장의 이야기공연 모습.

미를 담아 진행됐다. 연광 스님은 "광주를 상징하는 무등산은 차별이 없다는 불교적 의미를 가진다"며 "풍경소리 음악회를 사람과 자연을 차별없이 대하고 생명과 환경을 사랑하는 문화운동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등산 풍경소리는 중심사 문화광장을 비롯해 성당, 교회, 원불교당을 비롯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음악회를 벌여왔으며,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마당으로 자리매김 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과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산 051-441-0111  
울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구 053-566-1116 해운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